



소양농협, 농협파트너스와 마을회관 에어컨청소 지원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과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지사장 고영훈)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에어컨청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다가오는 무더위에 대비 소양농협 관내에 위치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에어컨의 위생과 청결 관리를 통해 조합원 등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마을 공동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은 사업비 약 6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총 35여곳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지원하며, 특히 농협파트너스와의 협업을 통하여 농협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소양농협 유해광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 효자3동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찰밥 나눔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선영)가 15일 효자3동 주민센터(동장 오현순)를 방문하여 경로당 어르신 100여명을 위한 '사랑의 찰밥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 10여 명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 모여 찰밥과 밀반찬을 정성껏 준비하여 관내 경로당 회원 100여 명에게 따뜻한 마음과 한끼를 전달했다.

유선영 효자3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운 여름에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든든한 한끼를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 곁에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오현순 동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효자3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시보건소, 폐렴구균 예방접종 독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64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접종을 독려했다.

보건소에 의하면 폐렴구균은 중이염, 폐렴, 균혈증 등의 원인균 중 하나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치명률이 최대 80%로 보고되고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남원시는 64세 시민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13가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65세가 되면 폐렴구균 23가 국가 무료 접종을 추가로 실시해 폐렴구균 감염증과 합병증 예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대상 나이에 따라 백신의 종류와 접종 기관이 다르며,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64세(1961년 출생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조합원 자녀 20명에 장학금 수여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15일 학업성적이 우수한 조합원 자녀 19명과 늦깎이 대학생 민학도 조합원 1명 등 총 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부안군산림조합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262명의 조합원 자녀에게 1억48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부안군 근농민재육성재단에도 최근 10년간 1억450만원을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에 노력하고 있다.

오세준 조합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합원님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위 '쾌거'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라권 등록기관 지정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회장 박선이)가 국가생명윤리정책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라권 거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가 2024년 말 기준 19세 이상 인구 대비 10.7%(전국 평균6.2%)로 전국에서 1위였으며, 지자체와 연계, 유관기관, 언론 등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운영등 운영방향이 높게 평가 받은 결과다.

이에 15일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전북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형별 등록기관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가 주관이 되어 권역 내 등록기관·단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록기관 방향성 정립,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국민 홍보 방안 취약체중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상담 확대 운영과 상담사 역량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차승현 팀장은 거점 등록기관 운영 취지와 거점 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제도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는 거점 등록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유형별 등록



기관 현안 및 사례 공유를 위한 간담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홍보를 위해 동영상 자체 제작, 유튜브를 통한 홍보와 상담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담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사례집도 제작하여 권역내 등록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박선이 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남은 삶을 계획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승화시켜, 죽음이 삶의 과정임을 국민들이 인식하여 존엄하고 성숙한 죽음 문화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최윤진 전북대 동문, 사회복지학과 학생 지정 1천만원 기부

'길위의커피' 최윤진 대표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위해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15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대 인근에서 15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최 대표는 "전북대 학생, 교직원 교수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번 기부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중간 정산' 같은 의미"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공한 사람이 되면 많은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성공한 후가 아니라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기부를 해도 된다는 마음이 들어 이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용한 기부천사로 알려진 '어른 김장하'의 삶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후배들의 길에 조용한 조역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대표는 앞으로의 기부 활동에 '길동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며, '나눔이란 결국 누군가의 길에 함께 걷는 일'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정문성 기자

남원시보건소, 방역관·역학조사반 15명 임명

남원시보건소는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방역관과 역학조사반 15명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역학조사 활동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관으로 보건소장을 재임명해 감염병 발생 시 지휘 체계의 일관성과 대응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역학조사반원은 기초 역학조사, 감염경로 추적, 접촉자 분류, 정보 분석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며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차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남원시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예비 방역 인력 교육, 수습 역학조사관 양성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내부 인력의 전문성 확보



한국실업불링연맹, 남원시에 물티슈 기부

남원시는 15일 한국실업불링연맹(회장 황운하)에서 물티슈 110상자(총 6,500개/ 한가액 1,000만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황운하 한국 실업 불링연맹 회장과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실업불링연맹은 불링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보급하여 국민 체력 향상과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우수선수 육성을 담당하는 단체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맹은 매년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와 체육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해에도 남원시에서 전국 실업 불링대회를 개최하면서 물티슈 1,000개를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5일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0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개소한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센터 노후화로 학습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그동안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컸던 오래된 책상과 의자를 새롭게 교체했다. 또한 균열과 타일 깨짐, 세면기 고장 등으로 안전과 청결에 취약했던 화장실을 개보수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급식지원을 위한 냉장고도 지원했다.

오픈식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김명선 센터장,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지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오임선 익산시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15일 제 27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후 본회의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가 수여하는 '전북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재선의원으로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오임선 의원은 의회 인력에서의 의정활동으로 익산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의 공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구인 아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송전탑 철거와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최근 사업이 최종 완료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으로써 자타 공인 아양동 특산이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오 의원은 비상조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65세 이상 전체시민으로 확대 개정하고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거구역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례들을 지속적으로 발의·제정에 왔다. /익산=이재춘 기자



오임선의의원



흥기덕 국제환경자원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흥기덕 국제환경자원 대표가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주천면 출신인 흥 대표는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친환경 원료 재생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남다른 애향심으로 재경 한우회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 대표는 "나고 자란 고향 남원에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며, 청소년 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남원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농협, 축산농가에 산업용 대형선풍기 14대 지원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15일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에 산업용 대형선풍기 14대(25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남원농협은 더위 극복을 위한 취약체중 나눔 활동을 위해 사무소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해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기열 조합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어도 현업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축산농가를 위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남원시는 15일 평생학습관 다목적 강당(본관 3층)에서 '사랑을 살리는 말'이라는 주제로 민간 사회복지사들과 사랑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실천적 사랑의 표현으로 실천 철학의 방향성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가 관내 민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 5회 실시하는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실천 과제로 추진되며,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체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